

# 텔레마띠끄

(L'Informatique de la société)

원저 : Simon Nora & Alain Minc

陳 庸 玉 편역  
(경희대학교 교수)

## ■ 차 례 ■

### 제 3 부 미래에 대한 질문

첫번째 가정 : 전산화된 사회와 문화적 갈등이 있는 사회

1. 고도 생산성 사회, 갈등이 만연한 사회
2. 텔레마띠끄와 문화적 갈등
  - 가. 텔레마띠끄, 언어 그리고 지배
  - 나. 텔레마띠끄와 지식, 권력

두번째 가정 : 불확실한 미래의 과제 / 정보를 사회화 할 것

1. 불확실한 미래
2. 현재 : 계획이 없는 규제와 규제가 없는 계획
3. 정보를 사회화 하는 것

## 제3 부 미래에 대한 질문

먼 미래에 대한 소견은 두가지 가정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고도생산사회에서의 갈등은 사회생활의 각 부문에나 문화의 각 구성요소 즉 언어나 지식 등에까지 점차 확대된다.

둘째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의 시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텔레마띠끄의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사회화하는 일이다. 이러한 화제에 대하여는 총체적인 결론을 맺는 것보다는 일련의 문제 제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텔레마띠끄는 프랑스의 Simon Nora와 Alain Minc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국정보고서로서 정보통신에 연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 첫번째 가정 : 전산화된 사회와 문화적 갈등이 있는 사회

### 1 고도 생산성 사회, 갈등이 만연한 사회

데이터 처리는 산업생활에서 요구되던 바와는 상당히 다르나 대단히 능률적인 작업과 직업들로 인하여 고도 생산성사회의 부상을 가능케 하며, 또 이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1차 및 2차 산업에서의 노동력의 격감, 서서비스의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가 자원화된 많은 활동들의 증가 등이 그러한 변화인데 앞으로 조직구조의 변화와 일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래 커다란 산업적 복합기업이 형성되었으며 이윤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었다. 이는 어떤 종류의 생산분야에서는 이러한 성장이 계속 될 것이다.

발전에 대한 지나친 환상에 빠지지 않고 그들

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인 규율과 조화될 수 있는 이익배당과 오락 등에 대한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에서의 경험과 외국의 여러 실례들은 새로운 기술 특히 자동화와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신기술은 소규모 조직이 효용성에 있어 대조직보다 나을 수 있는 분야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사회적 긴장이나 “엔트로피” 및 과대기관들의 전형적인 취약성은 이러한 생산의 확산을 일반화할 것이다. 공장은 소규모 작업장으로 대체될 것이며 큰 집단은 분점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은 점차 작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많은 시설물들은 분산될 것이다. 게다가 사회의 일반적 경향은 생산작업량의 점진적 축소를 요구할 것이다. 전체적 견지에서 이러한 전보는 불가피하다.

전통적 사회 현상은 그것이 산업적이고 계통적인 조직사회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정보사회로 나아가기 때문에 점점 덜 체계적인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생산에 기반을 둔 사회관계는 이제 더 이상 사회생활의 유일한 모형은 되지 못할 것이다. 경쟁도 산업진행과정에서의 그들의 위치 차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나 사업계획의 다양함으로 인하여 생긴 유동 집단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한 마찰이 일어나는 원인이나 범위 등은 전체사회로 확산될 것이다.

이들 집단간의 대결이 어떻게 그들 집단의 목적인 생산적인 고용의 임무와 보상을 해결할 것인가? ‘노동의 가치’가 없어질 세계에서 가치 있는 노동은 그것의 중요성을 상실할 것인가?

종교적 유산과 일상 습관의 결과에 따른 노동의 사회적 미덕과 안전의 가치가 수세기에 걸쳐 그것을 사회조직의 초석으로 만들었다.

남아있는 생산적 활동은 하층 빈민계급을 구성하는 이주민 및 예비 인력이나 거대한 기술 부화기내에서 만들어지는 소수 신경성 환자들의 의무가 될 것인가? 노동계층은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일자리가 더 많은 인구사이에 분배는 되지만 사회적 지위와 보호를 제공하는 주된 활동과 전통적인산업 노선을 벗어난 생산 형태에 또는 여가를 즐기는데, 또는 단순히 사교

생활에 충실하기 위한 수많은 직업으로 분리되는 것이 될 것인가? 어떤 법칙이나 공동의 가치는 적어도 세가지 형태의 집합적 조직들의 불가피한 공존을 지배할 것인가? 즉 합리화와 최대 생산성에 주력하는 대규모 기업체들이나 기술혁신, 신상품, 새로운 소비의 길을 열면서 그 지배법칙이 진취적이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소규모 작업단위들 그리고 경제적, 재정적 보상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지만 노동의 소비자나 오락의 제공자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 서서비스나 조합, 협회 및 고도로 분산된 단체들간의 불가피한 공존을 지배할 것인가? 외면적으로는 안정되어야 한다는 제한하의 명량한 사회내에서 또한 필수적인 두 세계 사이에 어떻게 그 미묘한 균형이 확립될 것인가?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 갈등의 원인이 바뀌기 시작했다. 충돌은 오랫동안 사업계에서 계속 나타났지만 그것들을 야기시키는 것은 점차 다른 경쟁분야 즉 도시문제, 건강, 교육 등과 같은 것으로 이동되고 있다. 1968년의 학생폭동은 이러한 변혁의 첫 조짐이었는데, 생태학적 운동으로 연장되어 오고 있다. 소교생활의 확장, 이웃생활이나 여가에서의 동맹감동은 새로운 욕구를 나타내며, 새로운 경험을 유발하고 생산세계에서와는 다른 힘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잘 인지되며 현재의 정치생활은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하는 데 그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도 생산성사회의 변화를 시작하고 있을 따름이다. 즉 활동이 문화적 요인에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그들을 전유하는 것이 역사의 추진력이 될 그런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느리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텔레마띠끄는 문화의 중요도구 즉 개인에 대한 관계, 심지어는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의 언어와 집합적 기억의 확장과 사회단체의 평등이나 차별을 이룩하는 도구로서의 지식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 ② 텔레마띠끄와 문화적 갈등

수메르인들이 밀랍위에 처음으로 상형문자를

했을 때, 그들은 인류의 중요한 변환기 즉 문자의 발생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갔을테지만 그것은 세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었다. 오늘날의 데이터 처리의 도입도에 비견될 만한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유추는 인상적인 것이다. 즉 기억의 확장, 정보시스템에서의 증식과 변화 그리고 권위유형의 변화 등 놀라운 유사성들이 고대로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환의 중요성은 만약 워털루에 대한 Fabrice의 견지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가해한 것으로 남게 될 것이다. 방법상의 결함이 있더라도 즉 데이터 처리가 마침내 언어와 지식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천천히 그 변화를 예상하는 도구들을 제거해 갈 사고와 개념과 추리에 있어서의 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없지만 단지 새로운 질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답변을 주는 질문을 하는 일을 해야 하는가?

**가. 텔레마띠끄, 언어 그리고 지배**

데이터 처리가 널리 보급되어 컴퓨터용 언어가 표준화되었을 경우에는 일상언어와 구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텔레마띠끄는 통신에 기초를 둔 활동들 - 사무, 법률문서의 준비, 교재의 작성 등 - 에까지 파고 들므로 사실상 서로 다른 성질인 명백한 언어전달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는 텔레마띠끄가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그 실례로서 데이터 처리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대화의 재생을 시도하여 최소비용으로 통신하기 위하여 단순화된 언어를 고안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년간에 걸쳐 널리 보급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경영자들보다 지식층이 더 민감하여 내용의 일부를 희생하므로써 용이함과 효용성을 결합시킨다.

이러한 발전은 해를 거듭하면서 진행될 것이다. 처음에는 기록에 대한 데이터 처리의 적용이 식별에 있어 가장 빈약한 주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기록 방법에 관하여 그렇게 대단한 변화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데이터통신은 어디

에서 멈출 것이며, 가정집들은 언제 컴퓨터를 장만하기 시작할 것인가? 이 질문은 전자계산기가 보급된 선례가 없다면 보증할 수 없을 것이다. 15년전만 해도 어느 한사람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학생들에게 유용되고 값싼 계산기가 널리 보급된 것은 상상도 못했다. 오늘날 암산이 덜 중요해질 것인지 또는 언제 사라질 것인지는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 처리가 다소 빈약하긴 해도 일상생활에 관계된 메시지를 표현하기에는 풍부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되었을 때 무엇이 전통적 기록 방법이 될 것인가? 언어는 조직방법을 변형하고 형성시킨다. 즉 언어를 자극하는 것이 바로 사회진체를 흔드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사회의 계층구조를 조직하고 또 재조직한다. 하층계급은 유력한 계층에 비하여 생활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문화적 불평등이 현재 만연되어 있는 상태이고 언어는 그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데이터언어를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자유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등을 강조할 것인가? 그 영향은 각 사용자에게 꼭 같지는 않을 것이다. 확실히 그것은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며 더욱 더 세련된 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각 상이한 사회계층내에서 그것의 보급은 통일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암호화되고 축어화된 언어의 도입에 대하여 동일한 저항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침투 가능성은 그들의 문화수준에 달려 있으며 후자는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텔레마띠끄는 서로 다른 효과를 지닐 것이다.

**나. 텔레마띠끄와 지식, 권력**

한 사회의 문화양식은 사회의 전통에 따르며 그것의 통제는 권력계층의 필요조건이 된다. 무한히 큰 정보자원에서의 접근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지식의 획득과정을 변화시키므로써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의 저장은 텔레마띠끄와 더불어 그 규모나 성질에 있어 변화한다. 컴퓨터에의 저장은 기술적 및 재정적 뒷받침과 조직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데이터뱅크의 설립은 정의조차 내리기 어려운 형태로 지식의 급속한 재구조

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변화는 대부분 그러한 बैं크의 후원자-주로 미국에 있는-의 주도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문화양식에서 기원한 기준이 널리 보급될 것이다.

이와같이 데이터처리는 지식 순환의 불연속들 중의 하나인 원인이 되는 위험도 있다. 규율의 한계는 사전계획이나 지침이 없이 산발적인 노력들의 복합적 편찬의 결과이기 때문에 보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일 것이다. 첫째로 데이터뱅크의 성질에 따라 이러한 발전은 군대내에서 조직된 것도 아니고 동업조합을 형성하는 것도 아닌 미국문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형태수가 증가하는 것은 분류법 통일화의 중요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때는 지식은 전통과 사회학의 확고한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적더라도 자유는 얻는 것일까?

데이터처리는 정확한 지식의 축적속에 있는 개별문화에도 대변혁을 줄 것이다. 상이점은 지식의 조사와 탐구보다는 지식의 저장에 덜 근거를 둘 것이다. 또한 개념이 사실의 우위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변형을 받아들이는 것은 교육학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이루는 것이다. 보편적인 세부지식의 획득에 주어질 우선권은 오늘날 학교에 의해 확실하게 되는 영속적인 문화의 개념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전세계의 학교와 대학들, 그들이 근거를 두고 있는 특수 실적제도, 선생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이념 등의 사회학적 특징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학문 구조와 개념에 대한 이러한 동요는 분명 서서히 일어날 것이며, 교육이 데이터 बैं크에 의해 나타난 변형에 적응할 수 없는 동안에 전개될 것이다. 그 기간에 학생들-학교는 이들에 대해 중요한 문화적 틀이다-은 지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 무방비 상태로 있을 것이다.

지식에 있어 모든 변화는 사회적 변화를 수반한다. 중간층의 증대는 동시에 도서의 증가를,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의 발달은 기술적 관료계급의 출현을 가져온다. 즉, 권력이 행사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하는 새로운 기율이다. 컴퓨터통신 혁명은 현재로는 평가될 수 없는 결과

를 가져올 것이다. 한 집단이 몇 단계 후퇴하고, 다른 집단이 미리 알려진 몇 단계를 전진하는 '거위 게임'으로서 생각되는 사회적 변화의 정적인 개념을 가져야만 한다.

## 두번째의 가정 : 불확실한 미래의 과제 정보를 사회화할 것.

### 1 불확실한 미래

만약 첫번째 가정이 옳으면,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산업에 기초를 둔 사회에서 같이 나타난 자유주의적이고 맑스주의적인 접근방법은 점차 의문스러운 것이 되었다.

자유주의적 접근 방법은 역사를 경제적 법칙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갈등은 시장에 국한된 것으로만 생각한다. 맑스주의적 분석은 갈등을 인지하나, 그뒤의 변혁은 생산과 관련하여 형성된 두 계급 사이의 대립과 관계가 있다. 원시적 자본 축적의 경험에서 발생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전반적이고 명백한 권력관계에 근거를 둔다. 역사의 목표-계급없는 사회의 도래-가 생산수단의 복합적인 진유에 의해 매우 간단히 실현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적어도 후 산업사회와 같이 신비한 환상이다.

정보사회는 이러한 분석들과 예측들을 맞추지는 않는다. 생산단계의 세계를 넘어,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규제양상과, 문화적 모형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적용시킨다. 이것은 단일화된 분석에 대응하지 않는 수많은 분산되고, 표현되지 않은 갈등의 소재지이다. 분명히 체제적 접근 방법은 다극화된 사회를 잘 설명할 수 있으나, 다극화된 사회는 선형적인 전략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의 가치는 여러 적대자들의 당면 과제가 될 것이고, 결과는 불확실한 사회가 될 것이다. 역사가 오래 지속될수록 사람들은 더욱 많이 그것을 만들게 되고, 그들이 구상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더욱 모르게 된다.

그래서 미래는 더 이상 여러 접근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접근 방법이 근거를 두고 있는 종합적 계획의 질과 규제에 본바탕에 의존한다.

### 2] 현재 : 계획이 없는 규제와 규제가 없는 계획

자유주의는 중상주의 사회를 낳았다. 이것은 계획없는 규제 체제이다. 마르크스주의적 경영은 - 그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 보호주의적 사회를 만든다. 그들은 규칙없는 계획을 작성한다. 이 둘은 사회로 하여금 빈약한 정보의 수준에 머무르게 한다. 자유주의 세계에서 경쟁과 그 결과 및 가격체제는 정보와 결정의 두 역할을 한다. 그들은 좋은 나쁜 것 개개인의 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전체 사회는 오로지 상업적 가치의 수준에 의하여 측정된다. 즉 시장은 사회의 유일한 "총체적"인 가치가 되며 가치의 최고 판단 주체가 된다.

이 견해는 판단과 행동에 대한 대략적인 지침서를 제공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은 지금껏 생산자와 소비자의 형태를 지배하는 정보의 흐름(유통)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화적 모형과 '형태적인 모형'에 의존하며 상업적 활동을 넘어선 것에 직면할 때는 소용이 없다.

개인이나 단체의 힘과 이해관계를 초과하여 오랜 기간동안의 전략으로부터 일어나는 규제는 충을 이루고 있다. 개인적 혹은 집합적 선택의 계층은 exante로 논의될 수 없다. 그것의 ex post 실행은 불공평하게 시련을 받는 조성 이외에 어떤 종합적인 특혜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개인은 나름대로 그의 내적 소망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측정할 수 있고 그의 불이행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 정치적 참여의 어느 기계주의도 소외감이나 좌절감의 결과를 보상할 수는 없다.

동부에서 실행되었던 것처럼 마르크스주의적 경영은 '주인 정보'를 상징적인 틀안에서 실현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또 그것의 이상적인 모

델로 사회를 좌천시키는 도구로서 이끌고 있다. 그것은 보호적인 시스템을 창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해 단지 하층으로부터 정보를 필요로 한다. 위로부터의 정보는 명령의 형태가 될 것이다. 주의는 분산된 계획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계획의 이행에 있어서 역할을 할당받은 각각의 그룹이나 개개인에게 주어진다.

명령에 의한 모든 규칙은 초자연적 참여에 의한 통합을 찾는다. 가끔 그것은 성취될 수 있다. 존재론적으로 '중양의 주요 계획'과 결국엔 개인적 욕망의 집합적 본질을 표현하고 역사적 목적에 의해 현재의 어려움을 정당화하며 종합적 계획과 개인적 행동 사이에서 감성적인 연결을 이끄는 제도를 만들려고 시도한다.

그와같은 시스템의 약점은 그것의 내부 알력에 있다. 시민사회는 말이 없다. 단지 그 유일한 표현은 깎과 틈 사이에 존재한다. 이와같은 중양의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원칙적으로 욕망과 수요의 표현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가격도 지표가 되지 못하고 명령이다) 그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중기에서 필요한 하층으로부터의 정보도 그 자체 소망의 단지 허황된 생각이 되고 만다. 많은 실제 사회양상에 의해 전달될 지 모를 표시와 정보를 제거하기 위한 주장에 있어서 "apparat-chiks는 단지 그들의 동료시민, 혹은 그들 자신의 이익 추구의 꿈을 다루는 것이다. 고도의 생산 사회에서 풍부하고 잘 분류된 정보는 사회 집단의 자발성과 양립하는 필요 불가결한 압박의 짐을 만든 것임에 틀림없다.

### 3] 정보를 사회화하는 것

완전히 박식한 "현인"의 이상적 세계에서 소작은 자발성과 일치한다. 완전한 시장 사회에서 교육과 정보는 각각 개개인으로 하여금 집단적인 압박을 의식하게 할 것이며 잘 계획된 사회에서 중양은 각각의 단위로부터 그의 우선 질서에 관한 정확한 메시지를 받을 것이며, 똑같은 구조와 태도를 가질 것이다. 정보와 참여는 함께 발전한다. 그들의 양적인 소망을 표현하는 것

은 시민들에게 관계되고 또 그들의 단기적 규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공공 당국에 관계되는 한 시장은 대결을 위한 효과적인 광장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룹의 계획은 사회적, 문화적 영감을 점증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외부 압박은 증가할 것이다. 공공 기관은 미래사회를 보존해야만 할 것이다. 노동의 국제적 분배에 있어서 커다란 붕괴는 정부에 의한 결정을 요구할 것이다. 분산된 지시와 자발적인 반응은 커다란 결핍을 위한 준비를 가능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예견되었지만 유통가격에 의해 겨우 암시만 될 뿐이다. 마찬가지로 어느 개인적인 예측도 공공사회로부터 선택의 자유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넘어선 국가 주권의 제한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적절한 정보를 소유한 당국은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고 나라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다. 그것은 중요 압력의 중재차이다.

사회의 순기능은 사회집단이 그들의 포부와 싫어함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더불어 압박에 관련된 정보도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지기를 요구한다. 규칙없는 자발성은 없고 또 계층없는 규칙은 없다. 자영할 수 있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회는 의견을 달리할 것이다. 전체사회의 변형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것은 참여의 전략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정보화사회는 기구를 설립하여 그것에 의해 제약과 자유, 독립집단의 특권 계획과 포부 등이 조화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센터의 전략과 주변의 소망이 사회와 국가가 상호 지지할 뿐만아니라 상호 산출하는 것에도 기인한 협정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압력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정보가 분산된 단위의 수준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그들 결정과 같은 것에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은 그것의 중요성을 단지 통합을 통해 생각할 수 있다. 그 속에서 그것은 오랜 기간의 어려움과 통합된 계획에 직면하는 동시에 올바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로 되돌아 가야만 하며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타내지기를 요구한다. 또한 그것의 순환은 제도화되어야만 한다.

영국인들은 하나의 사실은 '市長'과 같이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장의 정통성이 도전을 받고 있는 국가에서 이 금언의 중요성은 어떠한가? 정통성은 정해진 절차의 결과이다. 특히, 그들 권위에 예속되어질 모든 사람이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위로부터의 정보는 그것이 권력이나 확장이나 속임수로 생각되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정보를 준비하는 데 참여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수납자는 역시 전달자이며, 전송도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참여도 적대 그룹들이 그들의 정보를 생산하고, 처리하고, 전송하는 능력을 똑같이 갖고 있을 때에만 받아들여 질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적이든사적이든 단체나 결사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들의 계획을 저항화시킬 정보의 모집과 활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유형의 정보가 포함될 것인가? 책임을 진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를 알리면서 집단적 계획의 목적과 일련의 실제적인 데이터를 알맞게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데이터가 면밀하게 준비되고, 구성이 데이터를 쉽게 전달하게 하여, 데이터에 쉽게 접근함으로써 비평을 할 수 있을 때 효과가 있게 된다. 정보는 상호 교환되어야 하며, 다른 집단의 목적에서 생기는 제약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생기는 규제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적인 담판을 알려주는 정보, 사실을 옳게 보지 않고 나열만 하는 정보계획을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정보 또는 이념을 실제적인 사회발견 요인으로 주입시키지 못하는 정보들은 점차 擬似정보로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정보를 유용하게 만드는 것은 정보를 조리가 서고 수용될 수 있는 사고로 변형시키는 구조에 대해 최소한의 의견일치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 간다. 시장만이 수평적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정보사회는 독립집단의 주된 욕구와 later-

al communication의 무제한적 증식에 초점을 맞출 것을 필요로 한다.

사회의 대향 컴퓨터화는 개개의 동질 지역 사회가 상대방에게 센터와 통신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통신은 현대 국가의 크기에 맞는 '정보광장'을 재창조하여야 한다. 그래서 협정과 타협이 점차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은 항상 커다란 지역(공동)사회를 포함하는 여론을 표현할 것이고, 계속 장기적 안목을 가질 것이다.

컴퓨터화된 사회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대략 국가 생활은 세가지 기능, 세가지 규제 시스템 즉, 세가지 정보체제에 대응하는 세가지 수준으로 조직될 것이다. 주요국가는 집단 계획이 설정될 수 있는 곳이다. 공공당국은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제약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할 시기이다. 그들은 시장을 사용할 수 있으

나, 직접 명령하고 지배하기 전에는 물러날 수는 없다. 그래서 규제는 정치적 작용에 본질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다. 가격 체제에 기초를 둔 시장은 집단의 자발적인 욕구가 표현되고 결정적인 것이다. 즉, 공동이익과 문화적 포부에 의해 부과된 제약들이 잘 표현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후자는 더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닌 도구가 될 것이다.

정보사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식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서와 포부의 상호 학습 절다는 천천히 일어난다. 즉, 세대를 통하여, 문화적 유형-가정, 학교, 정보매체 등-의 변형을 거쳐 진행될 것이다.

레이터처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잘못 구체화하였다. 프랑스 사회가 예측될 우려의 긴박함과 범위가 이 중요한 학습과정에 필요한 시간은 허용할 것인가?



陳 庸 玉

저자약력

- 1943년 3월 21일생
- 1968. :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 1975. : 연세대학교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 1981. : 연세대학교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 1980. : 통신기술사
- 현재 :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교수